

**부시**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서기장의 군축 제안은 서독의 작가이며 철학자인 Friedrich Schiller의 「착각에 빠진 사람」이란 표현과 미·소 핵무기 감축회담에 관한 秀作연극 「A walk in the Woods」에서 소련 대표가 말한 『형식이나 절차는 빗질한 머리때문에 망친다』라는 말을 생각하게 한다.

Schiller의 표현은 각국의 국방전문가들에 의해 제기된 의문점을 대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부시의 유럽주둔군 20% 감축제안은 바르샤바 조약기구도 그렇게 응해줄 것을 감안한 것이지만, 과연 소련이 이 새로운 제안의 수준에서 군사력을 유지할 것인가, 또 이 수준에서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소련이 東·西의 긴장을 완화하는데 노력할 것인가에 대해 서방측의 의구심을 배제할수 없다.

두번째 引用표현의 뜻은 군축의 형식이란 언제든 늑대로 돌변할수 있는 대상을 연미복을 입은 신사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는 전면전이 유럽에서 발발할 것이라는 예견을 흐려놓고 있다.

현 상황에서는 냉전이 끝났다는 것을 믿지 못할 이유가 없다. 10여년전에 동구출신작가 Arthur Koestler는 공산주의를 「神의 실패작」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정확한 표현이었다.

최근 소련, 중국 및 여러 공산국가의 지도자들은 경제와 정치적 자유의 개방, 군사비 부담의 경감등 사회주의교리에 민주주의적 개혁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대부분의 공산국가들은 자국의 경제를 개혁하지 않으면 사회침체와 혼란을 야기시킬 상태라고 전망하고 있다.

물론 NATO나 바르샤바조약기구 어느쪽도 당장 군축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빨라야 1990년대 중반에 가서야 양측은 유럽에서 핵무기를 철수하고 약 27만5천여명의 병력을 유지할 것이다. 만약 미·소 양국이 지역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면 군축은 中東이나 페르시아만 지역, 그리고 中美지역에서도 일어

날수 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Schiller의 표현은 해당되지 않을 것이다. 동구나 서구 어느쪽도 착각으로 인한 희생물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군사협정은 정치적 해결을 망쳐놓았다.

양측이 군축을 하면 양측 모두 약하게 평가되겠지만, 당면문제가 동·서간에 정치적으로 해결이 된다면 차후 선택은 과거와 같이 위험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규모가 적은 정예의 군대가 더욱 강력하고 잘 훈련된 군대로 운용될수 있다는 착각을 전략가들이 정책입안자에게 일깨워 주어야 한다.

방대한 규모의 군대가 세계평화에 중대한 위협을 끼친다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은 균형이 깨졌을때 규모가 적은 군대도 역시 위협적이라는 사실을 곧 알게 될 것이다. 사실상 바르샤바조약국이 NATO군과 무장을 균형되게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허약한 NATO군으로

NATO 공동협력계획의 우수성을 반영하는 Sea Sparrow(사진), RAM, MSOW 병기, 종말유도 다연장 로켓, 공동생산의 개량형 F-16등의 장비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서는 전쟁에서 패할 것이다.

新데탕트와 東·西의 숫적인 균형을 맞추기 위해 NATO의 군사력을 감축한다면, 빈대를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우는 경우와 같은 군축이될 가능성이 있다.

### 새로운 정책과 정부 및 업계의 역할

NATO 지도자들은 현 사태의 배경에 대해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다. 유럽에서 질적인 감축을 추구할수 있는 정책과 전략은 어떠한 것인가? 또 군사력을 감축할때 미국과 유럽의 방위산업계의 적절한 역할은 어떠한 것인가?

최근까지 서방의 국방수뇌들은 강력한 재래식 군사력으로 적을 억제하기 위하여 빈약하고 평범한 방법을 추구하였다. 현재도 공격시 「質的」인 결정타를 가할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한정된 재원을 끌어들이기 위해 같은 정책을 유지하고 있음이 틀림없다.

그러나 사실상 FOFA(Follow On Force Attack), 전력증강, 준비태세, 군사비 분담같은 것을 계속 강조할 가치는 있다. NATO는 일반적인 방법인 일반장비와 일반적인 전략으로서 기준을 삼아 군사력을 증강시켜야 한다.

서구 방산업계에게 신데탕트는 NATO에서 군과 업체간 협력의 해체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상 이 관계를 더 큰 합병으로 이끌고 있다. 틀림없이 모든 NATO국가들은 미·소가 현재의 유럽주둔국에서 철수를 한다면 국방예산을 삭감할 것이다.

만약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NATO와 바르샤바조약기구간의 균형이 「두개의 억지력」으로서 본질을 가지고 있고, 전쟁위험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면 적은 비용으로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할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미·소의 관계가 불편해진다면 미국은 유럽에 군대를 신속하게 항공기나 배로 急派할수

있는 능력을 과시하여야 한다. C-5와 C-17 수송기를 충분히 보유해야 하며, 유럽주둔군을 현대화시켜 미군이 유럽에 도착하기 전까지 NATO군이 바르샤바조약군을 방어할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 방산분야 특히 획득/비용 부문에서 협력의 증가없이 이것을 달성할수 없다.

NATO 공동협력계획의 우수성을 반영하고 있는 SeaSparrow, RAM, Modular Stand-off 병기(MSOW), 종말유도 다연장 로켓장비, 공동생산하는 개량형 F-16 전투기등과 같은 장비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소련의 개량형 T-80 전차와 필적할 주전차와 개량된 경공격헬기, 고정익 근접공중지원기, 전방 방공장비는 낮은 수준의 NATO와 바르샤바조약군간의 균형상태 아래서는 모든 NATO국가에게 대단히 필요할 것이다.

이것을 위해 美 국방장관과 캐나다, 서유럽 국방장관들은 고도의 복합제조기술에 관한 협의와 低비용 생산방법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써 NATO의 장비를 현대화시킬수 있으며, 각국은 강력한 군대를 유지할수 있다.

한편 계속적인 군 감축에도 불구하고 NATO의 지도자들은 군축의 실제적인 측면은 군사력을 과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납득시키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비효과적인 방위비 지출은 없을 것이다.

냉전의 쓰디 쓴 교훈은 데탕트와 전쟁억지력은 상호대립적이라는 것이다. 70년대 미국은 소련과의 긴장이 완화되자 곧 군사력을 감축하는 실수를 범하였다. 이어 아프카니스탄 사태가 발생하였고, 소련이 유럽에 핵무기를 비축하기 시작하였다. 결국 세계군사력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서방측은 군사비 지출을 10배나 확대하였다.

간단히 말해서 군축은 평화에 필요하지만, 현대화가 수행되지 않으면 전쟁발발 위험성은 증가할 것이다. \* < Miltech 89/7 >